

[보도자료]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배포일	2026. 6.24(수)	문의	기획실(02-6191-1154)

국가안보전략연구원, 'PEACE FORUM' 개최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 및 평화관리 방안 모색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6월 29일(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PEACE FORUM」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 남북 간 평화공존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 협력의 확대 방안과 비군사적 남북 협력의 현실적 접근 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회식에서는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개회사를,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1세션(라운드테이블)은 '연쇄 정상외교에 따른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 : 한반도 주변국의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진행되며,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부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발표자로는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문제연구실장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하상응 서강대학교 교수 ▲조진구 경남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미중, 중러, 한일, 북중 정상회담 및 베트남, 싱가포르 정부 인사 방북 등 각종 계기 시 한반도 의제 논의 결과 및 평가와 함께 하반기 한반도 주변국의 대한반도 전략 전망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현실적 과제(주변 4강 외교)를 주제로 북한의 국경선 공사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충돌방지 및 북미간 대화 여건 조성 등 단기적 과제와 재래식·핵 위협 감소를 위한 대북 접근법 및 중·일·러 등 주변국을 활용한 신뢰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다뤄볼 계획이다.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이 사회를 맡

표자로는 ▲조용근 경남대학교 교수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은 ▲이근욱 서강대학교 교수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前 수석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는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며 “오늘의 논의가 향후 정부의 정책 수립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제언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EACE FORUM은 2025년 10월 22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3회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리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략적 논의를 시행하고 있다.

끝.